〈한양도〉에는 북악과 인왕, 타락과 목멱의 봉우리와 구릉이 힘차게 묘사되어 있고, 그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성곽이 표현되어 있다. 한양도성의 묘사는 간결하나 체성과 여장을 구별해 도성의 형태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한양도성의 각 방위에 위치한 4개의 대문, 그리고 그 사이에 4개의 소문이 표현되어 있다. 정남방에 능선이 잦아든 곳에 숭례문을 2층 문루로 그려, 이 대문이 한양도성의 정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정동 방향에 흥인지문을, 정서 방향에 돈의문을, 정북 방향에는 숙정문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묘사되어 있다. 북악과 인왕에서 흘러내린 물길과 목멱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개천으로 합류하고, 동쪽으로 흐르면서 여러 갈래의 물길이 합쳐져서 오간수문을 지나 도성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4산을 감싸고 있는 골짜기를 따라 내려온 성북천·정릉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합류한다. 한양도성 서쪽 밖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만초천도 한강으로 합류한다. 이와 같이 4산과 물길, 그리고 그 위에 축조된 한양도성은 한양의 도시경관을 이루는 기본구조이다.

한양은 방위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그 위에 내사산의 지세와 물길이 겹쳐지고, 이를 토대로 각각 남대문·동대문·서대문 및 북대문, 그리고 서소문·남소문·동소문·북소문과 같이 심상으로 인지하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이 〈한양도〉에는 산의 흐름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연관이 표현되어 있다. 백악을 주산으로 경복궁이 건설되고, 백악에서 이어진 능선을 배경으로 창덕궁이 건설되었으며, 인왕을 배경으로 경덕궁이 자리잡고 있다. 경복궁에는 대문 자리에 광화문이, 궁역 안에는 근정전과 경회루와 간의대의 명칭만 있고 전각은 그려져 있지 않다. 돈화문을 대문으로 표시하고 궁장으로 둘러싸인 궁궐에 창덕궁과 인정전, 창경궁과 명정전, 그리고 그 사이에 종묘가 전각 그림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경덕궁은 흥화문을 대문으로 숭정전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창덕궁 동쪽에 문묘가 명륜당과 동재 서재